

中國의 古尺에 대하여

金 稔 子

一、

筆者는 考古美術關係研究發表會에서 발표자들이 遺蹟遺物이 造營될 당시에 사용했던 尺度에 관한 分명한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로 그 규모나 크기를 보고하는 경우에 실제로 그 실명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境遇를 종종 했었다. 그때마다 中國側史料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 지나치게 신뢰한 결과로 빚어진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是正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껴오던 터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필자만의 것이 아닐 것이며, 이미 하나의 주제로 오래도록 남겨진 채 우리 학계의 힘이 미처질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믿지만 과묵한 탓이어서인지 이러한 문제에 관한 문제의 제기마저도 一文①에 불과하고, 또 우리나라 度量衡制度에 대한 개설적인 연구나마 최근에는 이 루워진 것②과 같은 이 방면 연구의 부진은 수년래의 考古美術史學界의 상황에 비해 보면 더욱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 한국미술사학 발전에 기여가 크신 스승 樹默 秦弘燮 博士의 回甲을 頌祝하는 뜻과 아울러 앞으로의 이 방면 연구에 적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기대하면서 中國古尺에 關한 史料의 大略과 年前에 美國 哈佛大學校 燕京圖書館에서 求得해 본 「傳世歷代古尺圖錄」③에 收錄된 古尺들과 현재의 公尺(Meter)과의 比較數值 및 隋書 律曆志 所載의 古尺 一五種과의 比較數值를 紹介해 두고자 한다.

二、

尺의 용도는 크게는 城廓·田疇·貢賦制度 등에서 적게는 車·服·衣裳·布·帛 등 일상용품의 長短을 가늠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소용됨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그 始源은 殷周時代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 때에 사용했던 유물이 전해오는 경우는 드물고 실체로 근대적 의미의 尺의 實傳은 훨씬 후대의 일로 전해진다. 이는 사용되었던 古尺이 牙·骨製品도 있지만 대부분이 竹·木製品들이어서 쉽게 훼손되었고, 전해지는 것은 銅·玉製品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銘文이 새겨진 경우가 드물어서 그 製作實年代를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재에 전해지는 文獻의 기록들은 前代의 學者들이 歎識이 되어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中國尺의 起源은 이 같은 遺物에 앞서서 人體나 곡물의 길이를 근거로 하고 있음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說文에,

「尺十寸也 人手卻十分動脈 爲寸口 十寸爲尺 尺所以指尺規築事也」

尸从乙 乙所識也 周制 寸尺咫尋常 勿諸度量 皆以人之體爲法」

从禮記 王制篇에 「丈夫布手爲尺」 또 史記 卷二、夏本紀에,

「禹爲人敏給克勤 其德不違 其仁可親 其言可信 聲爲律 身爲度」④과 같은 기록은 人體를 尺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史料가 될 것이며,

漢書 卷二十一上 律曆志 上、

「度者 分寸尺丈引也 所以度長短也 本起黃鍾之長 以子穀秬黍中者一黍之廣 度之九十分 黃鍾之長 一爲一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 十丈爲引 而五度審矣」⑤는 이른바 「黃鍾之長」이라고 부르는 검

은 기장의 길이를 그 표준으로 삼았다는 기록으로서 결국 곡물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려주는 자료라 하겠다.

이상의 문헌 이외에도 中國古典의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기록은 散載하여 전해오고 있지만 中國古尺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최초의史料는 晉書 律曆志의 記事라고 생각된다.

晉書 卷一六 律曆志上에,

「魏陳留王景元四年(二六三) 劉徽註九章 商功曰……, 王莽銅斛於今尺深九寸五分五釐……」

라고 한 것은 우선 王莽尺이 魏尺보다 四分五釐가 짧은 것을 알려 주는 것이며, 이어서

「武帝 泰始九年(二七三) 中書監荀勗校太樂 八音不和 始知後 漢至魏 應尺長於古四分有餘 勗乃部著作郎劉恭 依周禮制尺 所謂古尺…… 皆 應最銘其尺曰 晉泰始十年 中書考古器揆校 今尺長四分半…… 姑洗徵 疆西京望泉微弱其與此尺 同銘八十二字 此八者最新尺也 今尺者杜夔 尺也」라고 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晉尺이 周尺에 비해서 四分半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⑥.

그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隋書 律曆志에서 一五種의 古尺으로 分類하여 일단 古尺의 長短을 정리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宋代에 이르러서도 尺度의 기준을 정해 보려는 노력은 수차에 이르러지만 別 絶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隋書의 古尺에 대한 기준을 따랐다는 기록들을 ⑦ 찾아 볼 수 있다. 明清代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款識된 尺들이 발견되어 그 때마다 당시의 金石學者들에 의해서 그 眞否와 長短이 논의되었을 것이며, 이 같은 노력은 民國時代에까지 계속되어 몇편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⑧ 현재의 사용척(meter)과의 比例數值를 표시한 경우는 드물다.

隋書律曆志所載十五等尺과 晉尺前 및 現今公尺(meter)과의 比較數值

通 號	朝 代	尺 名	晉前尺 ¹⁾ 과의 比例	現今公尺(meter)
1	周	周 尺	1 尺	0.231
2	周	玉 尺 ^①	1 尺 7 釐	0.23261
3	梁	表 尺	1 尺 2 分 2 釐 1 毫	0.2361
4	漢	官 尺	1 尺 3 分 7 釐	0.23809
5	魏	杜夔律尺	1 尺 4 分 7 釐	0.24185
6	晉	後 尺	1 尺 6 分 2 釐	0.24532
7	後魏	前 尺	1 尺 $\frac{1}{2}$ 寸 7 釐	0.27881
8	後魏	中 尺	1 尺 2 寸 1 分 1 釐	0.25581
9	後魏	後 尺	1 尺 2 寸 8 分 1 釐	0.27974
10	東魏	後 尺	1 尺 $\frac{3}{5}$ 寸 8 毫	0.29591
11	後周	玉 尺 ^②	1 尺 1 寸 5 分 8 釐	0.3475
12	宋	宋 氏 尺	1 尺 6 分 4 釐	0.30048
13	隋	律呂水尺	1 尺 1 寸 8 分 6 釐	0.26749
14	趙	劉曜渾天儀尺 ^③	1 尺 5 分	0.24578
15	梁	俗間尺	1 尺 7 分 1 釐	0.27396
				0.24255
				0.2474

(凡例) ① 原名은 晉 田女 玉尺 임. ② 原名은 蔡邕銅籥尺 임. ③ 劉曜渾天儀土圭尺 임.

(註) 1) 隋書, 卷 16, 律曆志 潘度條에는 晉前尺을,

「漢志 王莽時 劉歆銅斛尺 後漢建武銅尺 晉泰始十年荀勗律尺爲晉前尺」이라고 규정 짓고 있다.

傳世歷代古尺 및 現今公尺(meter)과의 比較數值

通 號	朝 代	尺 名	現今公尺 (meter)	備 考
1	商(殷)	骨 尺	0.1695	傳出安陽, 南京博物館
2	周	銅 尺	0.227	據拓本
3	戰國	銅 尺(1)	0.230	傳出長沙, 上虞羅氏藏
4	戰國	銅 尺(2)	0.227	傳出長沙, 尺尾稍殘
5	戰國	銅 尺(3)	0.230	北京歷史博物館藏
6	戰國	鏤 牙 尺	0.230	番禺葉氏藏
7	戰國	銅 尺(4)	0.231	北京歷史博物館藏
8	戰國	銅 尺(5)	0.231	傳出洛陽金村古墓
9	漢	牙 尺(1)	0.233	傳出涇縣, 北京歷史博物館藏
10	漢	牙 尺(2)	0.233	同 上
11	漢	牙 尺(3)	0.233	
12	漢	銅 尺	0.233	據拓本
13	漢	鏤鳥獸形花紋銅尺	0.233	據拓本
14	漢	畫彩牙尺	0.2338	日本嘉納氏藏
15	新	王莽度	2.310	甘肅定西縣出土
16	新	王莽貨布尺	0.231	據莽貨布泉
17	後漢	彫鳥獸形花紋銅尺	0.235	傳長沙出土, 北京歷史博物館藏
18	後漢	建初六年銅尺	0.235	據拓本
19	後漢	鏤金鏤花銅尺	0.236	山東掖縣坊北村出土, 山東文管會藏
20	後漢	畫彩牙尺	0.239	日本嘉納氏藏
21	魏	正始弩機尺	0.24255	據弩機
22	宋	骨 尺	0.247	北京歷史博物館藏
23	宋	殘骨尺(殘存五寸)	0.247	陝西西安出土, 陝西文管會藏
24	梁	鏤花銅尺	0.2475	上虞羅氏藏
25	梁	鏤金彫鳳銅矩尺	0.249	日本嘉納氏藏
26	梁	銅 尺	0.2495	北京歷史博物館藏
27	梁	鏤金銅尺	0.2515	同 上
28	唐	石 尺	0.280	陝西西安六號墓出土, 陝西文管會藏
29	唐	白 牙 尺	0.296	日本正倉院藏
30	唐	紅牙撥鏤尺(1)	0.297	同 上
31	唐	綠牙撥鏤尺(2)	0.297	同 上
32	唐	鏤金銅尺	0.299	北京歷史博物館藏
33	唐	鏤金鏤花銅尺(1)	0.301	陝西西安郭家灘78號墓出土, 陝西文管會藏
34	唐	鏤牙尺(1)	0.301	據拓本
35	唐	紅牙撥鏤尺(2)	0.3025	日本正倉院藏
36	唐	綠牙撥鏤尺(2)	0.304	同 上
37	唐	鏤金鏤花殘銅尺	0.304	陝西西安郭家灘號墓出土, 陝西文管會藏
38	唐	鏤金鏤花銅尺(2)	0.304	北京歷史博物館藏
39	唐	鏤牙尺(2)	0.311	日本嘉納氏藏
40	唐	鏤花銅尺	0.311	北京歷史博物館藏
41	唐	鏤金鏤花銅尺(3)	0.3135	日本嘉納氏藏
42	宋	木矩尺(1)	0.309	北京歷史博物館藏, 鉅鹿故城出土
43	宋	鏤金銅尺	0.309	同 上
44	宋	金錯玉尺	0.281	據拓本
45	宋	銅 尺	0.316	北京歷史博物館藏
46	宋	鏤花銅尺	0.316	同 上
47	宋	木矩尺(2)	0.329	鉅鹿故城出土, 同上
48	宋	木 尺	0.329	同 上

通號	朝代	尺名	現今公尺(meter)	備考
49	宋	浙尺(清金殿揚做古)	0.2695	北京歷史博物館藏
50	明	骨尺	0.320	山東梁山出土, 山東文管會藏
51	明	嘉靖牙尺	0.320	故宮博物院藏
52	清	部頒牙尺	0.310	上虞羅氏藏
53	清	工部營造尺	0.320	又名河工尺
54	清	量地藩尺	0.343	上虞羅氏藏
55	清	裁衣銅尺	0.349	同上
56	清	裁衣牙尺	0.353	北京歷史博物館藏
57	清	樂律用尺	0.258	據清會典

(羅福頤, 傳世歷代古尺圖錄, 北京, 文物出版社, 1957 轉載)

三、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앞에 지적한 諸典籍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實傳된 古尺과 中共政府 성립 이후 진행된 遺跡調査에서 얻어진 山東·陝西古墳出土品 중에서 款識된 古尺을 중심으로 現今 사용적(meter)과의 비교수치를 표시하고 있다는 데 종래의 연구된 古尺에 관한 文獻에 의거한 것 보다 사료로서의 가치와 신빙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연구성과 이후 二〇여년 동안 더 많은 자료들의 발견이 있었으리라고 믿지만 현재로서 정리된 자료를 우리의 鑒證의로 얻게 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은 일임이 자명한 것이다.

四、

이상에서 간략하게 中國의 古尺에 관한 文獻의 大略과 傳世古尺과 現今使用尺인 meter와의 比較數值를 소개해 보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尺의 數值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늘어갔고 ⑨ 이 같은 尺의 數值의 확대가 尺의 재료 특히 銅의 경우기온의 寒暖에 따라서 약간의 誤差가 있다는 과학적인 배려까지를 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현재의 사용적으로 유적·유물을 측정했을 때 그것의 기준을 晉尺 東魏尺、周尺에 의한 것이라고 제시하더라도 그 정확도는 의심의 여지가 있음은 물론이며, 그렇게 간단하게 단정짓는다는 것은 꼭 위험한 일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이다. 좀 더 관계학자들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는 연구 태도가 요망되는 것이다.

(註)

- ① 申榮勳, 「皇龍寺九層塔과 周尺」, 考古美術, 第九卷 一一號(二〇〇號)、一九六八、一一、頁三七—四五、
- ② 朴興秀, 「度量衡」, 國史編纂委員會編, 한국사, 一〇、一九七四、頁五二—五四五、
이외에 동일저자에 의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李朝尺度에 한 研究」, 大東文化研究, 四、一九六七、頁一九九—二六六
「新羅 및 高麗의 量田法에 關하여」, 學術院論文集, 一一、一九七二
- ③ 羅福頤, 傳世歷代古尺圖錄, 北京, 文物出版社, 一九五七、
원래는 一九三六년 만주에서 저자 자신에 의한 油印物로써 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알려진 것이라 미루워(Joseph Needam, Science & Civilization, Vol. III, Mathematics & the Sciences of the Heavens & the Earth, Cambridge Univ. Press, 1959, 卷三) 그 후 中共정권하에서 새로이 얻어진 자료들에 의거하여 재구성 출판된 것으로 생각된다.
- ④ 史記集解 索隱에 보면,

⑤ 「王肅曰 以身爲法度 按今巫猶稱禹步」라고 설명하고 있다. 漢書補注에 보면,

「師古曰 子穀猶言穀子 即黑黍中者 不大不小也 言取黑黍穀子大小中者 率爲分寸也 和音鉅」라고 한 것으로 보아 검은기장은 중간크기를 지칭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 정확도는 믿기가 어려운 것이다.

⑥ 宋書 卷二二、律曆志上

「後漢至魏 尺度漸長於古四分有餘 杜夔依爲律呂 故致失韻……」이란 단치 Needam, 前揭書, 頁八二에

“through which the older literature maybe reached There is general argument that the length of the standard foot showed a continuous tendency to increase through the three millennia from the Chou to the Ching 0.195 to 0.308m.”라고 한 것이로도尺의 길이가 점차로 늘어났음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⑦ 宋史卷七一、律曆志에 보면,

仁宗景祐三年(一〇三六) 詔丁度等詳定 黍尺鍾律……, 仁宗皇祐中(一〇四九—一〇五三) 又詔累黍定尺以制鍾律 時曾集專家爭論經年 久不能決 高若納獨據漢貨泉 依隨志定古尺十五種 上之于朝」라고 했다.

⑧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楊寬、中國歷代尺度考、上海、商務印書館 一九三八 改正增補版 北京、文物出版社、一九五五、

吳大澂、權衡度量實驗考(未完稿)、一八九四、再印行、一九一九、

吳承洛、中國度量衡史、上海、商務印書館、一九三七、

王國維、中國歷代之尺度、上海、商務印書館、一九二六、

⑨ 그 원인에 대하여……王國維는 띄 흥미로운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稱尺度之制 由短而長 殆成定例 其增率之速 莫劇於東晉後魏之間 三百年間 幾增十分之三 求其原因 實由於魏晉以隣 以絹布爲調 官吏懼其短耗 又欲多取於民 故代有增益」(傍點筆者)

(觀堂集林、一九、記現歷代尺度)

(梨花女子大學校)